

대구참여연대 희망위원회 4차 워크숍

대구참여연대 10년 평가와 전망

- 2007. 8. 25. 17:00
-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

< 대구참여연대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성 >

- 박근식(대구참여연대 편집위원장)

1. 진보적 시민운동으로서의 참여연대운동.

@ 진보적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80년대식 혁명적 패러다임과 실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 더불어 개량적 시민운동세력과의 차별, 양심에 기초한 시민운동과의 차별, 대중적 언어와 실천의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다. 현실적으로 참여연대는 진보적 시민운동과 양심적 시민운동의 결합이라 봐야 하겠다.

@ 진보적 시민운동은 좌파적, 변혁적 시민운동의 전망아래 이루어지는 지속적 개혁투쟁이다.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저항 하는 근본적, 급진적, 영구적 개혁을 지향한다.

@ 또한 계급 환원론적, 근본 환원론적 사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인권, 환경, 여성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착목하는 운동이다.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시민운동”으로 정리 된 바 있다.

@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저항한다는 것은 철학적, 신념적으로는 반자본, 비자본으로 표현 되고, 현실적 대안 사회에 대한 상은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극복이다. 담론적으로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혹은 자본주의), 건강한 복지자본주의 수준에서 타협된다.

@ 그러나 개혁의 의제 설정과 수위가 주객관적 정세와 대중의 정서를 고려한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견해와 이견의 차이가 발생한다.(공존과 이견) 민중운동, 타 시민운동, 회원내부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 분명한 것은 맹목적 반대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구체적 대안만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권력감시운동을 뛰어넘는 비전의 제시와 가치 형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대안적 사회에 대한 합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일정한 이론적 합의가 필요하다.

2. 정당운동과의 관계설정

@ 시민운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운동이나 정당정치운동과는 차별성이 있다. 시민운동은 권력운동과 정당운동에 깊숙이 협력, 타협하기도 하지만 견제와 감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정당정치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의 중심이다. 홀로서기 이냐? 아니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다. 판단의 기준은 어떤 방법이 시민운동의 대중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한국 사회의 진보에 기여 하는가이다.

@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의 정당정치 참여가 건강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급격히 감소시켜 왔다. 이번 대선을 정점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 시민운동과 열우당의 결합, 민노총과 민노당의 결합이 성공적이라 볼 수 없고 서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결국 무차별적 연대의 강조가 아니라 대중운동, 시민운동, 정당운동은 ‘협력속의 각개약진’이 현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 시민운동과 정당운동의 만남은 기계적 결합보다는 주민운동 등의 구체적 실천을 통한 외연의 확장, 정책적 연대와 실천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 시민운동은 자기중심, 독립적 실천, 중립성, 비판성에 입각한 연대와 비판이어야 한다. 결국 시민운동의 직접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간의 창출, 아젠다의 선점, 가치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 방법을 통해 진보적 권력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의 생명은 순수성과 도덕성이다. 신재야 운동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 임원의 직책 없는 순수 당원 활동을 인정하는 문제, 회원들의 정당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대한 문제 역시 고민 되어야 한다.

3. 대구참여연대의 방향성에 대해

@ 대구 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한 복잡한 지형, 제 시민사회단체의 결속력의 부족, 중앙중심운동의 한계 속에서도 참여연대는 나름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시민운동, 실사구시적 주민운동의 창출, 지역 사회 운동의 단결을 생각한다면 참여연대의 주도적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 주도적, 중심적 역할은 자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내적 혁신을 전제로 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 지난 10년간 참여연대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에 기초한 실천력의 저하, 열정

과 패기의 도전적 자세 상실, 임원과 상근자들의 보수적 조직관리 등의 문제로 나태하고 안일한 관성주의라는 문제를 일으켰다. 한마디로 조직에 진취적 기상이 사라진지 오래다.

@ 지역운동의 대안적 의제 개발과 실천적 전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재편되어야 한다. 권력 감시운동의 영역 축소와 간결화, 전면적 자치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가장 대중적 운동이 가장 혁명적이다. 양의 정치에 대한 믿음과 전략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2-3년의 중기적 전망을 둔 대중정치의 의제 개발, 선동과 선전 전략이 필요하다.

@ 재정문제에 대한 개방적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 문제가 단체의 효율성과 운동성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수익사업의 적극적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이다.

@ 주민자치운동과 더불어 부분 운동 중에서 학생, 청년, 강사노조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 몇가지 느낌과 단상

- 참여연대의 생존전략 (지도적 역할을 할것인가?)
- 참여연대의 꿈은 무엇인가?
- 주민자치운동의 네트워크, 대중적 의제 개발(가장 대중적 운동이 가장 혁명적이다)
-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실천중심의 운동
- 방만한 감시운동에서 벗어나자
- 학생운동과 청년운동, 시간강사노조에 대한 조직화
- 다시 열정이 필요하다.
- 연대의 새로운 질 확보(책임지는 연대)
- 물적, 행정적 토대 확보를 통한 양의 정치 구현(규모의
- 인권위와 노동청의 활용
- 세계와 함께 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
- 성찰과 교육과 함께 가는 진보운동의 참여연대
- 전면적 회원 중심의 전환
- 통 큰 설계와 힘찬 전진

< 대구참여연대의 조직, 의제, 연대 >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직의 운영,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조직현실은 다소 초라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며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활동이 축적해 온 대중적 신뢰, 운동진영의 기대, 정치적 영향력은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운동은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과 미래 역사에 대한 사명감 속에 존재하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되는 것, 지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운동정신, 운동조직, 운동의 물적토대를 갖추어야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되 비교하지 않으며, 미래 역사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에서부터 관계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구성하고, 인적, 물적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진취적 자세로 실천하는 것이다.

< 10년 평가와 전망의 단초 >

의사결정과 집행, 실천을 일치시키는 조직구조

활동가 규모, 역량의 안정화

지역과 청년층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지지토대 재구성

시민의 삶의 요구를 반영, 과정과 조직이 있는 대중운동

한국(지역)사회개혁 전략에 기초한 의제 설정, 연대 포지션, 관계 맺기

1. 대구참여연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1) 개괄

가. 회원총회

- 매년 회계연도 말(1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

- 정기총회는 사업보고안, 예산안, 사업계획안, 임원선출안을 의결하고
- 임시총회는 단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야 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최되는 데 2006년 기부금 소득공제 지정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그 여부를 묻는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3년 지하철 참사시 조해녕시장 퇴진운동을 결의하기 위해 임시총회에 준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음.

나. 공동대표

다. 운영위원회

- 현재 43명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당연직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주민조직 및 회원모임 대표/ 선출직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결로 선출되고, 상시적 총원은 운영위원회에 위임). 집행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해당사업을 보고.
- 운영위원회 변천의 특징은 1) 초기에는 단체의 외연확장과 위상 확대, 재정확보 등이 중시되어 월 5만원이상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전문가나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중반이후 회원대표성과 활동성을 중시하여 당연직 위원제도를 도입하고 열성회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경향으로 변모해 왔으며 2) 단체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들의 책임을 높이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직을 신설, 확대하였으며, 사회이슈와 단체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인식제고를 위해 좌담회(콜로키움)를 운영하게 됨.
-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하에 별도 위원회(재정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 희망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당시 조직의 주요과제를 수행.

라. 집행위원회, 활동기구

-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사회인권센터, 시정개혁센터, 편집위원회/ 준활동기구로써 회원참여사업팀)과 선출 집행위원(2명 내외)으로 구성되며, 격주 1회 회의를 개최.
- 집행위원회 변천의 특징은 1) 논의력을 높이고 활동기구로 해소되지 않는 여러 활동들을 협력, 수행하기 위해 선출직 위원을 도입한 것 2) 당시 조직의 주요사업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시내버스권리찾기운동본부 등)를 설치, 운영해 온 것 3) 집행위원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정개혁센터(지방자치센터), 예산감시운동본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직위원회(회원자치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3개기구로 간소화.
- 각 활동기구들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특징으로는 1) 초기에는 활동기구의 활동을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실행위원 회비를 납부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자체 충당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반기 이후 약화되었으며 2) 활동기구의 주요활동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사회복지공부모임, 작은소리, 의정감시단, 예산감시단, 언론모니터반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

마. 사무처

- 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일상적 실천활동에서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을 하므로 사무처의 활동력과 단체의 활동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사무처의 활동력은 상근활동가의 규모, 활동가의 사명감과 업무 능력, 활동가 공동체의 일체성 등에 의해 좌우됨.

- 사무처 인력 규모의 면에서는 99~ 00년까지 10~12명(상근 자원활동가 포함)까지 활동한 적이 있었고 이 시기가 단체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때로 볼 수 있음. 그 후 지속적으로 줄어 왔는데, 현상적으로 주된 이유는 생활고와 존재적 불안, 급여상승에 따른 재정부족, 상근자 공동체의 일체감 약화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무처 활동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은바 사명감과 숙련도(종합적 의미)가 높은 고참 활동가의 순차적 이탈(사무처장 임기 평균 2년에 불과), 신입 또는 중간 활동가의 지속성 결여 등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활동의 절대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규모로 인한 실무 가중으로 인한 고충, 경제적 고충,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는 존재감과 사명감, 활동가 공동체의 이념적 동질성과 정서적 일체감의 부족 등이 있음.

바. 주민조직

- 대구참여연대가 지역별 회원모임을 조직한 것은 초기에는 회원 참여의 조직화, 외연확장이라는 조직사업의 일환에 무게가 실렸으나 00년을 기점으로 권력감시운동의 한계를 성찰하면서부터는 지역운동, 주민운동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

- 회원모임 단계에서 가장 왕성했던 때는 99~ 03년 사이로 서구, 달서구, 수성구, 북구, 경산, 구미, 청도에 이르기까지 회원모임들이 있었으며, 달서구, 서구, 수성구, 구미의 회원모임이 가장 활발.

- 02년을 전후로 다수의 회원친목모임 위주의 모임들이 자체 한계(중심인물의 상황 변동)와 본부 활동가의 밀착 관리의 소홀로 활동이 약화, 해체된 반면 지역운동으로써의 전망을 가졌던 구미, 동구의 경우 본부의 방침(활동가 파견 등)에 힘입어 지역주민회로 자리매김..

사. 회원구성, 회원조직

- 초기 회원구성의 특징은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 활동가 그룹과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진보적 전문가 그룹의 결합에 있었으며, 초기 몇 년간의 회원 구성, 활동에 있어서도 30대 초~ 40대 초의 청년들과 진보적 지식인의 활동이 주류를 이룸.

- 이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그룹의 사회편입이 가속되고, 진보적 지식인의 활동이 축소되는 한편, 활동의 성과적 결과이자 한계로 회비납부에 만족하는 4~ 50대의 일반시민의 회원구성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짐.

- 초기 회원구성, 활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구참여연대 청년회 모임과 대학생모임 등이 있었으나 조직적 관리, 지원의 소홀, 신규 활동회원층의 개발, 육성의 부재로 해체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현재의 활동회원층이 하향고정화되고 있는 실정.

- 취미, 기호 위주의 회원자치모임은 왕성한 시기에는 답사반, 산행반, 풍물반 등이 활발했으나 중심인물들의 변동 등에 의해 현재는 산행반, 영화모임이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답사반은 활동력과 조직결합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

2) 평가, 방향의 주요지점

가.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의 개선

○ 주요 평가지점

- 회원총회가 형식적이고 건조하다. 안전에 대한 토론과 결의는 그것대로 필요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참여, 실천의지를 제고하는 축제, 결사의 장이 되어야 함.
- 상시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비해 1) 안전과 결정내용이 수준 또는 중요도가 낮고 2) 운영위원들의 책임감과 회의 참여율이 낮으며 3) 결정 과정과 결정된 내용에 대한 운영위원 각자들의 참여, 활동이 부족.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지위와 실질적 위상 간에 간극이 존재.
- 상시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의 안정성이 부족, 집행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책임있게 논의되고 사무처, 활동기구를 통해 집행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무게 있게 결정되고 조직전체에 파급, 실행되어야 할 사안이 형식적으로는 구분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내용적 위상이 혼돈.
- 이러한 한편 총회 이외 회원 전체의 의사를 결집, 결의하고 조직 전체와 다수 회원들에게 역동적으로 파급되어 실천될 수 있는 의사결집 및 소통구조가 미흡.
- 핵심적 요지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소통구조 ↔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 간의 갭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조직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

○ 핵심과제와 대안의 방향

- 회원총회는 그대로 두되 형식과 분위기를 개선
- **운영위원회의 대의성과 결정내용의 조직적 파급력, 집행력을 강화; 가)회원평의회**
; 회원모임 대표성, 지역 대표성, 연령 및 성별 대표성 등을 골고루 반영하여 현재보다 배수 정도로 구성
; 안전의 중요도와 무게를 높여 격월간, 또는 분기별 개최
- **집행위원회를 확대, 보강하여 논의력, 집행력 강화; 가)상임집행위원회**
;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 활동기구장, 회원(지역)조직 대표, 사무처장, 집행위원회 추천 또는 평의회에서 선출한 0명 10여명 / 월 1회 개최
- **일상적인 집행 점검, 긴급사안 처리를 위한 체계; 가)집행책임회의**
;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활동기구장/ 상집 전 1회, 기타 필요시

나. 회원(인력)구조의 개선; 열성회원층의 확대

○ 평가의 주요지점

- 참여, 활동하는 회원층의 지속적 감소와 신규 활동회원 발굴 부족/ 활동회원층과 후원 회원층의 양극화
- 활동기구 등 사업 논의, 실행에 참여, 활동하는 전문인력, 지적역량의 지속적 감소
- 2~30대의 활동하는 젊은 회원층의 지속적 축소와 회원구성의 고령화
- 이로 인한 활동회원층이 하향고정화되고 조직(임원, 활동가)와 회원 사이의 중간고리 약화, 조직 역동성 약화, 미래 비전에 대한 자신감 결여

○ 핵심과제와 대안의 방향

- 대학생 등 청년그룹 목적의식적 조직화 방안 마련 및 지속적 투자
- 활동하는 여성회원그룹의 조직화
- 석, 박사 중심의 소장 지식인 조직화, 활동기구로의 투입

다. 활동가그룹(사무처)의 구조 개선, 역량 강화

○ 평가의 주요지점

- 단체 규모, 업무량 대비 활동가 절대 인력의 부족
- 활동의 장기지속성 부족,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활동가 역량 배가 미숙
- 장, 단기적 안정성, 지속성 있는 자원활동가 부재
- 평생활동가로서의 존재, 사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 활동실무와 관리실무의 중첩, 조사, 기획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진취적 조직사업, 대중사업 결여

○ 핵심과제와 대안의 방향

- 상근활동가 그룹 인력 충원; 예) 주요업무영역별로 1 + 1 시스템 마련
; 사무처장/ 총무관리부문/ 조직, 회원부문/ 편집매체부문/ 사회인권부문/ 시정혁신부문 등 각 부문별로 상근 1, 반상근 1/ 또는 상근 1, 자원활동 1/ 또는 반상근 2의 구조 확보
; 총 상근 6/ 반상근 2/ 자원활동 3의 구조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안정적 활동구조.
- 유급활동가로 장기지속될 수 있다는 존재적 안정성을 조직적으로 보장
- 직급순환제 도입/ 선진적 직무 연수

라. 주민회, 지역조직

- 대구참여연대 운동의 토대이자 주민주체의 고유한 풀뿌리운동으로서의 주민회 운동
- 주민회운동의 본격화 노선과 단계적 조직화
- 주민회운동을 통해 대구참여연대 운동 전체가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풍부해지도록 적극 지원 및 성과의 피드백
- 미개척 지역 회원조직화, 전략적 선택과 투자

마. 소통방식의 개선

- 주간 메일 매거진 재발행, 소식지 발행 안정화
- 정보화에 조응하는 소통 방안 마련
- face to face 대면 활동 강화(예)일일 일회원 만나기)
- 회원가입부터 소통과정 체계화

2. 대구참여연대의 운동 의제와 운동 방식

1) 개괄: 10년의 운동의제와 방식의 변화

▶ 권력감시운동(사회연대운동 포함)과 지역주민운동의 양날개론

○ 권력감시운동

- 의정감시운동; 해외연수, 의정활동평가, 의정감시시민연대 등
- 시정감시운동
 - ; 예산감시운동- 환공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 ; 정책감시운동- 대중교통, 앞산터널, 밀라노프로젝트, 주민참여제도화 운동 등
- 작은권리찾기운동
 - ; 고충상담 법률지원(공익소송, 법률학교) 활동
 - ; 휴대폰 요금, 버스요금 인하 운동, 생활법률학교 등
- 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예산감시, 실업극복운동, 노숙자지원활동, 주거복지확보운동 등

○ 지역주민운동

▶ 정파적 중립성, 도덕성에 근거 언론을 수단으로 한 공중진, 영향의 정치력

- 고소고발, 공익소송, 청원, 감사청구 등 제도적 수단과 언론 수단을 주로 활용
- 초기에는 의정감시단 활동, 시내버스권리찾기 활동 등 회원참여 캠페인, 시민고발인 모집 등 중소규모의 단기성 대시민 활동 전개→ 후기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위주로 행동양식 축소

2) 평가의 주요 지점

- 조직사업, 대중사업 없이 전문가 조언과 상근 활동가의 행동에만 의존하는 활동 방식
- 제기된 이슈에 대응한 단순 감시운동 의제(의정, 행정의 부패와 예산낭비 중심)와 방식(성명서, 기자회견, 고소고발)의 고루함
- 정치, 경제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 정서의 변화에 조용하지 못한 의제 변화의 선도성 부재
- 영향의 정치력의 한계와 지지 기반(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영향력의 실체가 부재)의 한계
 - 지방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운동의제와 방식의 미흡
 - 전문역량과 회원, 대중역량의 결합 미흡
 - 과정과 조직 없는 성과주의와 언론의존의 문제

3) 핵심과제와 대안의 방향

- 시민대중의 삶, 생활적 요구를 운동화, 대중참여를 기획, 조직하는 우리식 대중운동
 - ; 시민 삶과 참여연대 운동의제의 일치화
 - ; 진보적 의제와 대중적 방식의 조화
-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와 회원, 시민참여 방식 개발
- 지역사회 개혁의 전략에 기초한 핵심고리를 파고드는 운동의제, 방식 개발

3. 대구참여연대의 연대 방식, 연대 전략

1) 개괄

○ 연대의 유형

- 상설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615실천연대 등
- 장기이슈 연대; 한미FTA저지 연대/ 탄핵반대 연대/ 미선효선 연대 등
- 단기이슈 연대; 각종 지역사안 연대

○ 연대의 수위; 단순 참가/ 회비 납부/ 집행단체/ 책임단체, 상근파견

○ 연대의 의제

- 전국의제/ 지역의제
- 전국적, 종합적 의제; 총선연대, 지방선거연대 등 정치, 사회적 의제
- 지역적, 부문적 의제; 지방 정치, 행정의제/ 도시, 환경/ 여성, 인권 등 부문 의제

2) 평가의 주요지점

- 개혁, 진보의 중간 지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 단체 중심의 연대, 실질적 주도력과 책임 있는 활동보다 상징성을 앞세운 연대, 성명 발표식 연대
- 연대의 의제; 단기의제 중심/
- 연대의 리더십; 지역의 정치, 사회적 연대의 주도/ 전국적 정치, 사회의제의 소극적 참여
- 연대의 성과; 성과의 독식 ? 과도한 부담? 자의적 오만 ?/ 지역사회 개혁의 기여 ?/ 개혁진보진영의 양질적 향상 ?

3) 과제와 대안의 방향

- 단체 중심의 형식적 연대에서 사회적 약자, 이해관계 당사자 그룹과의 연대
- 상징성, 이미지 의존성 연대에서 사람중심, 실천중심의 연대
- 나눔의 연대, 협력의 연대, 의제선도형 연대, 새로운 리더십
- 한국사회, 지역사회의 진보적 개혁 전략 하의 연대 포지션과 사명감

< 대구참여연대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 류길의(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운영위원장)

향후 10년간의 희망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다.

사소한 것에 얽매어 지엽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10년을 관통하는 흐름을 읽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도도히 높아지고 집단적 가치는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경향성을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

개성의 발양을 최대한 보장하는 참여,

개성의 고립을 뛰어넘는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1, 상근 활동가와 회원의 정체성과 역할의 변화 - 그리고 소통에 대해

가, 상근활동가는 대변자의 역할, 실무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 아니, 그들이 다한다.

--> 변화의 방향은 상근활동가는 교육하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이다.

실천을 추동하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회원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추동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업무이다.

--> 회원에 대한 교육, 토론, 조직 등이 전체 상근활동의 75%는 되어야 한다.

나, 상근활동가가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 회원(회원활동가)이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이다.

--> 교육되어진 회원, 토론과 실천속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회원들이

시민사회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 자기변화를 하고 -->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 사회적 운동으로 풀어내는 회원들에 의해 실천되는 운동이 필요하다.

다, 회원과의 소통(수다)

** 상근 활동가는 회원들에게 운동의 원리와 정책내용 등을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 상근 활동가는 회원들에게 정치적 담화(왜 이러한가)와 사명감을 가진 실천적 담론(왜 실천해야 하는가? 의미)을 통해 이야기해야 한다.

** 회원은 생활상의 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

회원에게서 참여연대는 회비만 내고 대리만족을 얻는 곳이 아니다.

인생의 변화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곳이어야 한다.

2, 대외적 사업 중심에서 교육사업과 회원사업, 조직사업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가,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전략적 방침의 변화다.

- 4-5명이 참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주제는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정치적 전선, 권력감시 등)보다는 생활상의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나, 생활상의 주제

- 교육- 자녀교육 <학교 운영위원회, 어린이 도서관>,
- 주거 <아파트 자치회의>,
- 교통, 문화- 어린이 공원, 직장에서의 민주화 등

다, 생활속에서 해결해야 할 권력에 의한 모순과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에 반대하며, 건강성을 살려내는 주제와 합리적인 대안을 교육해야 한다.

- 문제를 절실히 느끼는 회원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변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3, 활동하는 적극적인 회원을 만들고 조직하는 것이 향후 10년 모든 사업의 밑거름이다.

가, 적극적인 활동가가 후원활동가로 전략하고 있다.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 적극적인 활동가가 자기 방향을 잃고 있다.
- 적극적인 활동가가 자족적이고 문화적인 모임에만 머무르고 있다.
- 회원이 시민운동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단체활동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속에서 시민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활성화 하기위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 적극적 활동회원 300명에 후원회원 2000명을 꿈꿔본다.
- 사명감을 가진 적극적 회원 활동가의 형성과 실천을 통해 시민운동, 시민사회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세워 나가야 한다.

나, 적극적인 활동회원은 일차적으로 생활지역 단위로 편제되어 조직되어야 한다.

- 시민이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한다.
- 자기 역할과 사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예) 서 00회원 반야월 어린이 도서관.

다, 주제와 이슈 그리고 회원의 열정과 처지에 따라 결합하고 실천하는 무정형의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지원센터 조직이 필요하다.
- 지원센터는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 지원하는 것이다.

다, 임원은 적극적인 활동가이다. 정보의 공유를 정확히 해야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임원은 책임성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 임원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 운동 자체가 적극적인 것이다.
- 임원은 회원에 대한 정치력, 조직력, 추동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4, 시민을 설득하여 시민을 움직여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가, 시민과의 소통흐름

- 민원의 접수. 대안의 마련. 문제의 제기.
- 문제제기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안을 명확히 함으로 소통의 주도권을 잡는다.
- 특이한 이슈, 구체적 증거, 명확한 요구 등으로 언론에 홍보.
- 양적인 동의를 조직해서 실천력을 담보해서 언론 플레이.
- 실천적 활동을 통한 담화- 작은 단위이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 됨으로써 언론홍보.

나, 문제의 지점

- > 시민과의 소통이 언론 플레이에만 머무른다.
- 조직화된 회원활동가들의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
-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고 추동해야 한다.
(예- 촛불시위, 리본달기, 경적 울리기 등)
-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은 대중운동이다. 대중적 설득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동의와 실천적 힘으로 성과를 내고 변화를 추동해 가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의 형성에만 머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

다, 시민의 소리를 듣는데 집중해야 한다.

-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작지만 많은 설문활동.
- 시민운동의 출발은 설문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세우는 것이다.
- 회원 활동가는 설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